

“감히 일개 판사가...” 트럼프 트위터 ‘역풍’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시애틀 지법판사 대놓고 공격 공화당 내부서도 반발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버트 판사를 비난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에 저항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집권 여당인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다.

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고서치 후보자가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기에 충분히 독립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아 간 소위 판사(so-called judge)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가 없으며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며 로버트 판사를 대놓고 공격했다.

이어 5일에도 “판사 한 명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고 말했다.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신공격이 민주당에는 고서치 판사 인준에 제동을 걸 동기를 부여했다고 WP는 전했다.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사(미네소타) 상원의원은 5일 ABC 방송 디스 워크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공격하면 우리와 싸우겠다는 것”이라

며 “우리는 독립적인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야당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지 매킨(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 CNN 방송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버트 판사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신공격성 트윗에 대한 견해를 묻자 “판사들을 자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때때로 우리는 모두 (판사들에) 실망한다. (그러나) 나는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비난이 잘못됐다고 공개로 지적한 셈이다.

공화당 소속 벤 새스(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한테는 ‘소위 판사’는 없다. ‘진짜 판사’만 있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판사’ 언급을 비판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보다는 ‘판사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장을 드러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로버트 판사의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결정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분명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가 그 명령에 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적으로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코미디언 딘 오베이달라는 CNN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미국이 트럼프가 이끄는 독재국가가 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름 끼치는(bone-chilling) 트윗을 올렸”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태무제의 충신 최호

최호(崔浩, ?~450)는 북위 태무제 때의 충신으로 북위가 하북을 통일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북위의 역사를 편찬한 국사사건에 연루되어 주살되었다.

그는 청하 최씨의 후손이다. 북위에서는 8대 선비가문이 최고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호한(胡漢) 연합정권인 북위에서 청하 최씨 등이 4대 한인 가문으로 존중받았다. 부친인 최광은 창업군주인 도무제를 보좌해 적극적인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추진했다. 상투를 틀고 관모를 쓰게 하는 등 한족의 풍습을 받아들여도록 자문했다. 그는 일찍부터 정가에 두각을 나타냈다. 3대 황제 태무제를 도와 하북 통일에 주력했다. 424년 외몽골의 유역 공략을 시작으로 431년 관중 지역을 장악하고 북방·북연을 멸하여 439년 하북 통일의 대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했다. 2대 명원제에서 태무제 치세까지 북위의 주요 정책은 거의 그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다.

분명하다”며 강남 명문과의 혼담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북위 사회에서는 오직 선비족만이 귀문(貴門)이 될 수 있었다. 일부 선비사족이 왕해를 귀문의 자제로 인정받은 것은 선비족을 무시한 처사라며 태무제에게 고발했다. 분기당천한 태무제는 그를 호되게 나무랐다.

2대 명원제 시절 남조와의 싸움에 황제를 모시고 종군했는데 전쟁을 마치고 귀경하는 길에 황하의 물줄기를 보고 “진시황과 한무제는 봉건제를 폐하고 군현제를 채택했으나 둘 다 다른 오류를 범한 셈이다”고 심경을 토로하였다. 선비귀족들은 이 말이 진시황과 한무제처럼 황하 유역을 통일한 북위 황제를 빗대어 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래저래 선비족들의 반감이 깊어갔다.

429년 국사편찬 작업을 총괄하는 사직에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북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그의 정치적 운명도 국사편찬 작업과 깊이 연루되었다. 한인사족 출신인 그의 사관은 한마디로 사실대로 역사

하북 통일 공신...역사편찬 비극적 말로

전승을 기념하는 한 궁중 연회에서 태무제는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고 한다. “이 사람을 잘 보라. 나보다 나하고 매우 가깝다. 활도 쏠 줄 모르고 방패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대군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 감추어져 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사람이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명실공히 태무제의 장람이요 왕맹이었다. 부친 최광은 도무제때 8원훈의 한명이었고 그는 삼대에 걸친 명신으로 삼조원로(三朝元老)로 불리었다.

그에게는 시기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다.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곧잘 연출했다. 그러나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 선비족에게는 조심스런 자세를 유지했고 황제 앞에서는 극도로 처신에 조심했다. 글을 잘 쓴 관계로 곧잘 묘지명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표현에 극도로 유념하였다. 한번은 강남의 유명한 왕씨 가문의 왕혜룡이 자신의 질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주변에서 왕혜룡은 명문 가문이 아니라는 말이 퍼지자 왕혜룡의 신체적 특징을 들어 “왕혜룡은 왕공귀문의 자제가

를 기술한다는 입장이었다. 역사는 춘추필법(春秋筆法)에 입각한 사실 기록이어야 한다는 한인 사가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는 선비족의 역사를 가감 없이 서술했다. 선비족이 얼마나 미개했는지 얼마나 잔학했는지 등 감추고 싶은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내용 일부를 비석에 새겨 수도인 평성에 세워놓았다. 금공 3백만을 들여 국사를 새긴 석비가 곳곳에 세워졌다.

선비사족의 불만이 폭발했다. “최호 등이 국정의 치욕을 폭로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태무제도 왕조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를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였다. 하북통일 사업이 완료되었고 최호, 고운 등 한인사족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점도 크게 부담스러웠다. 결국 삼조원로인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 범양 노씨, 태은 곽씨, 하동의 유씨 등 128명이 주살되고 사관제도 폐지되었다. 450년 6월의 일로 소위 국사사건으로 불린다. 최호를 호송한 차에 수십명의 군사들이 소변을 보자 온몸에서 지린내가 진동했다고 한다. 50년 충성을 다한 신하의 비참한 말로였다.

“프랑스 이민자 80% 감축”

대선후보 르펜, 트럼프 못지않게

프랑스 대선후보인 마린 르펜(48·사진) 국민전선(FN) 대표의 공약을 두고 외국인 혐오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극우 후보인 만큼 이미 예견된 행보이지만 그가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이런 정책 기조를 공표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르펜 대표가 발표한 공약은 이주민, 특히 무슬림의 프랑스 체류가 급격히 힘들어지도록 각종 법규를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FN은 프랑스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연간 1만명 수준으로 80% 감축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특별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보장 제공을 중단하고 무상교육 제도도 오직 프랑스 국민들에게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N이 집권하면 프랑스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도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르펜 대표는 밀집국 이주민은 아예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하고,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중 국적자들은 프랑스 국적을 박탈한 뒤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르펜 대표는 여론조사기관 Ifop과 피워시알이 지난달 3~6일 유권자 180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프랑수아 피용 공화당 후보와 무소속 에마누엘 마크롱 후보를 누르고 1차 투표 선호도 26~26.5%로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세손비, 내가 먼저 가겠소”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가 5일(현지시간) 런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헤즈 투게더(Heads Together)’ 자선행사에서 달리기 경주를 준비하고 있다. ‘헤즈 투게더’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왕실 차원에서 이끄는 자선 행사이다. /연합뉴스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 본사건물/지사건물/직업훈련학교/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감정가 58억 ■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 ◆ 평수 15평
- ◆ 평수 12평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용 2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보1천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용 5천)
- 성무지구 주거용/사무실 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062-511-7800
010-6832-97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 매월동 (장례식장) 토 2,911평, 건 1,362평 서광주역 1분 / 현정례식장 운영 연매출 약 60억 !! ▶감정가 116억 → 최저가 116억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톨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